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17일(수)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 공동체학교(꾸러기, 어린이, 멋쟁이)가 내일(15일) 개학합니다.
- 다음 주일에는 각 학교 졸업을 축하하며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공동체학교 연합 졸업식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해은 전도사님이 장신대 졸업식(18일, 목)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7 호

2021년 2월 1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40일간의 여정

분주한 우리들의 일상 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공격을 합니다. 외로움과 절망감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삶을 돌아볼 때 끊임없는 후회들과 고통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새 마음 둘 곳 없이 떠도는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분주한 일들과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정답을 알 것 같지만 이것이 쉽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는 것 같아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먹히고 말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얽메고 있던 것들로부터 떠나 거룩한 저항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성탄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 후 교회는 예수님의 자라심과 같이 성숙의 기간을 가집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을 묵상하며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으심을 생각하며 나와 세상의 죄들을 고백하며 뉘우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 후에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의 기쁨을 즐겨워 합니다. 그 후 50일 동안을 오순절로 기념하며 성령강림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심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숙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한 해의 시간을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를 통해 보내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뜻하는 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에서 유래된 말로 '봄'을 의미

합니다. 우리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사순절(四旬節)이라 부르는데 희랍어를 번역하는 전통을 따라 계속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종려주일[부활절 전 주일]을 기준으로 40일 전으로 계산하여 40일간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여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는 기간입니다. 기독교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받으신 기간이 40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보내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한 시간도 40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서의 큰 사건들에 공통점은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 수난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며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가지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는 금식을 할 수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구제와 경건훈련을 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생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하면서 느슨해지면서 잊혀졌던 예수님의 삶과 그 안에 담겨있는 희생의 사랑을 다시금 일깨우는 기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잠식하던 죄 된 방식을 의식적으로 중단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그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주간 말씀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41편

제목 : 질병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

인도 : 정태일 목사

기도 : 최상득 집사

찬송 : 543 279 33

1. 내용: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십시오.” <4>
2. 해석: “주님은 나의 주님” 나를 병에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한다. <10>
3. 적용: 1) 그리스도인의 복종의 하나, 주님께서 나의 병을 돌보신다.
 2) 병중에서, 나의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 확신하고 기도하라.
 3) 평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자.

<성서일기 범위가 복음서로 바뀌면서>

1. 그동안, 교회 또는 교회생활을 교훈하는 책을 보았다.
2. 복음서를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3. 요한복음을 먼저 보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
 - 1) 해석의 책, 깊은 내용, 쉬운 설명.(초신자에게 쉽다)
 - 2) 내용의 전체에서 ‘믿음’ ‘성령’ ‘공동체’를 강조.
 - 3) 주제(말씀-생명의 근원, 사람들에게 빛)와 구조(사건+해석)
 - 4) 요령(각 장의 사건을 기억, 해석에서 구절을 구분하여 암송)
 - 5) 예외(1장 서론: 말씀이 육신, 세례 요한의 증언, 처음 제자들 부르심)
 (2장 두 가지 사건: 혼인잔치-개인의 가정회복, 성전청결-교회회복)

하나의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지향하며

니케아 신경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고백한다. 교회는 하나 됨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거룩성을 유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두 원리가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다.

… 교회의 하나 됨을 유지하고자 무조건 용서와 사랑만을 강조하여 성도들의 삶을 나태하고 해이하게 만드는 것도 능사가 아니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자 지나친 엄격주의를 지향해 분파와 분열을 초래하는 것도 옳은 일 이 아니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교회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은혜의 하나님 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다. 성서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춘다” (시85:10)고 하였으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엡4:15)고 가르치고 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볼 때, 교회의 하나 됨과 거룩성이야말로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긴다. 과연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렘11:45)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니이다.” (요17:17)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주님의 소망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4:3)는 말씀에 따라 교회의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을 쓰고 용을 썼던가? 주님께서 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17:21)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과연 세상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 됨도 지키지 못했고, 거룩함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의’ 교회를 향한 열정과 ‘거룩한’ 교회를 향한 열심을 회복할 때이다.

그럴 때에 새로운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박경수. [교회사 클래스]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목사
설교자 : 정태일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 | |
|----------|---------------|-----|
| 초청의 말씀 | 시 편 133 : 1-3 | 인도자 |
| * 예배의 찬송 | 28 | 다함께 |
| * 기원의 기도 | | 인도자 |
| * 기원찬송 | 영광 영광 |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 |
|----------|--------------|-----|
| * 참회의 기도 | 고린도후서 5 : 17 | 인도자 |
| * 용서의 말씀 | | 다함께 |
| * 신앙고백 | | 다함께 |
| 고백의 찬송 | 569 | 다함께 |
| 공동기도 | | 다함께 |
| 목회기도 | |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 | |
|--------|--------------------|-------|
| 성경낭독 | 요한복음 2 : 1 - 12 | 설교자 |
| 성가대 찬양 | 438 | 사랑방 |
| 설 교 | “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 | 정태일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 | |
|----------|--------|-----|
| 의탁의 기도 | | 설교자 |
| 응답의 찬송 | 559 | 다함께 |
| * 봉헌기도 | | 인도자 |
| * 영광찬송 | 455(3) | 다함께 |
| * 위탁의 말씀 | | 설교자 |
| * 강복기도 | | 설교자 |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이용신, 진정행 / 봉헌위원 : 이용신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청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가정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로 오셨사오니,

모든 가정이 행복한 잔칫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일꾼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게 하셨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9> 신랑 불러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10>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을 회복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과 ‘빛’ 즉,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생명(예수 그리스)이 이땅의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각 장마다 전반부에서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2장에는 두 개의 사건을 소개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정을 회복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표징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십시오.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잔치의 행복이 사라지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가정을 회복하려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혹은 가정에 모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가족들이 서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성도는 하나님 가정의 가족입니다. 지체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확인해 보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전도사 / 기도 : 이윤희 권사

꾸러기학교

2월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방학을 마치고 드디어 개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또 다시 개학을 못하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꾸러기들의 아쉬움이 학교까지 느껴졌습니다. 안타깝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꾸러기도 처음으로 아침에 줌으로 아침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지내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집에서 놀 수 있게 매일 미션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연령이 집중력이 짧기에 길게 앉아 있기 힘들어하니 최대한 재미있고,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침에 체조로 시작을 해서 평소에 하던 기도와 말씀 암송하고 책을 한 권 읽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배달해준 매일 미션 세트를 함께 열어보며 오늘은 무슨 미션을 할지 소개를 해줬습니다.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틀 동안 아침 모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인사를 하는데 다들 몸이 근질근질 했었나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따라왔습니다. 미션 봉투를 개봉할 때 흥분하면서 개봉하는데 그 모습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2월 9일, 10일에는 미션이 비행기여서 비행기에 관한 책을 읽어주며 멋지게 비행기를 꾸미고, 미션 전지를 꾸며서 비행기 통과 놀이를 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갖는 모임 시간, 지혜롭고, 풍성한 기쁨의 장이 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교사들은 방학동안 2020학년을 평가하고 서로 피드백도 하며 2021학년을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서관의 책들을 한 권씩 다시 살펴 버릴 것은 버리고 대출반납을 위한 바코드와 청구기호를 만들어 붙이는 등 작업도 했습니다. 시간표도 새로 짜고 과목들을 나누어 맡고 어린이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어떤 수업이 적합할까 고민하며 교재를 준비합니다.

방학이면 친구네 집으로 여행을 떠나던 어린이들이지만 이번 방학은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전화와 영상통화, 편지 등으로 서로 안부를 물어야 했습니다. 식구가 적어서 친구를 부를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말이지요. 개학을 앞두고 방학 숙제로 오카리나 연습을 한 소모이가 두 곡의 연주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2학년치고는 제법 그럴싸하게 연주를 합니다. 한 곡은 생일 축하 노래였는데 마침 친구○○의 생일이라 생일선물로도 보내졌답니다.

설 명절로 어린이들의 겨울방학이 끝나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학교생활이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오랜만의 만남도 방학 전에 연기해 둔 학년말 발표회도 결국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잘 마무리하는 한 주를 기대해봅니다.

< 교사 : 정승희 >

멋쟁이학교

눈도 많고 답답함도 많았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봄의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자연의 흐름에 발맞추어 학교들도 개학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멋쟁이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번 함께 모여서 오랜 과제였던 교육과정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귀하고 뜻깊은 과정이었고, 앞으로도 이어갈 때가 기대됩니다. 이번 봄학기 기간의 멋쟁이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멋쟁이들은 다들 경험해봤기에 사뭇 익숙하겠지만, 아무래도 대면해서 지내는 것보다는 학교생활이란 느낌을 적게 받긴 합니다. 그래도 방학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부터 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겠지요? 설날 연휴를 지내며 한껏 풍요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실감나지 않지만, 한 살씩 더 먹은 나이에 걸맞도록 차차 자리를 잡아가는 기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힘들고 답답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인내심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곧 다시 만납시다!

< 교사 : 이어진 >

코로나 19속 명절

작년 이맘때 시작된 코로나19로 5명이상 모이지 말라는 방역 당국의 명령이 설 명절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것 때문에 시댁에서 먼저 전화를 주셨다. 이번에도 역시 내려오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추석에도 안 갔는데 설에도 가지 않으려니 나 역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명절 날 아침, 가족들 끼리 떡국을 끓여 먹고, 고향에 계신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다. 아이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전화기 속 증조할머니께 세배를 드렸다. 평소라면 어땠을까?

아마 4-5시간을 걸려 남편의 고향인 남원으로 향했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도 사고, 휴게소에서 우동도 사먹었겠지? 어떤 때에는 휴게소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앉을 자리를 찾기 어려웠는데 먼저 식사하시던 분이 아이엄마가 기다린다고 얼른 드시고 자리를 내 주신 적도 있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대부분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이 되면 추운 새벽에 비몽사몽 일어나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할머니 댁에 친지들이 웬만큼 모이면 아버님의 인도아래 가족예배를 드린다. 다들 잠이 덜 깬 것 같지만 씩씩하게 부르는 찬양 소리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아버님의 말씀이 있다. 예배를 마치면 아랫목에 할머니께서 앉으시고 순서대로 세배를 한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손주며느리라고 아직도 세뱃돈을 주신다. 세뱃돈을 받으며 잠시 이걸로 뭘 할까 생각하지만 대부분 오가는 경비에 포함되어 금방 사라져 버린다. 세배가 끝나면 준비한 아침상이 방으로 들어오고 이번에도 역시 반찬이 너무 많아서 밥그릇을 놓을 자리가 없어 들고 먹는 사람이 생긴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치우고 조금 쉬려고 하면 마을에서 안내방송이 나온다. 마을 어른들께 세배하러 회관으로 모이라는 방송이다. 남자들끼리 우르르 몰려 나가면 따뜻한 아랫목 이불 속에 들어가 아침에 못 다한 잠을 청한다.

이 길고 긴 과정이 이번 설에는 영상통화 한번으로 끝나니 참 코로나가 혁명을 가져온 듯하다. 지난 연말, 아이들에게 새해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하고 싶은 모든 걸 코로나 때문에 못한 한해였으니... 새해엔 아이들 소원이 이루어져 많은 것들이 회복되길 간절하게 바래본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예레미야애가 1:4-7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미얀마에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의회를 해산시킨 이후로, 이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 시위를 하는 중,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9일 시위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군인들이 점령한 국영방송국에서는 무법행위자를 거부하고 제거해야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몇 개 도시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그리고 집단 행동 가운데 코로나가 더 크게 번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행복교회>

- 1) 복음의 참된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누림이 있게 하시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행복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2) 속히 이 나라와 더불어 온 세계가 평안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 3)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구정을 지내는 모든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자유롭지 못한 명절을 쇠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지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그대로 적용되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고향을 찾지 못했던 이들이 많았는데, 이번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이동을 삼가하였습니다. 사랑방공동체도 명절 기간 조용한 가운데 각자 가정별로 지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설 음식을 전해주는 이들이 있어서 마음은 따뜻합니다. 내일부터는 학교들이 봄학기가 온라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각 학교들도 모두 건강하고 큰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재훈 전도사 >